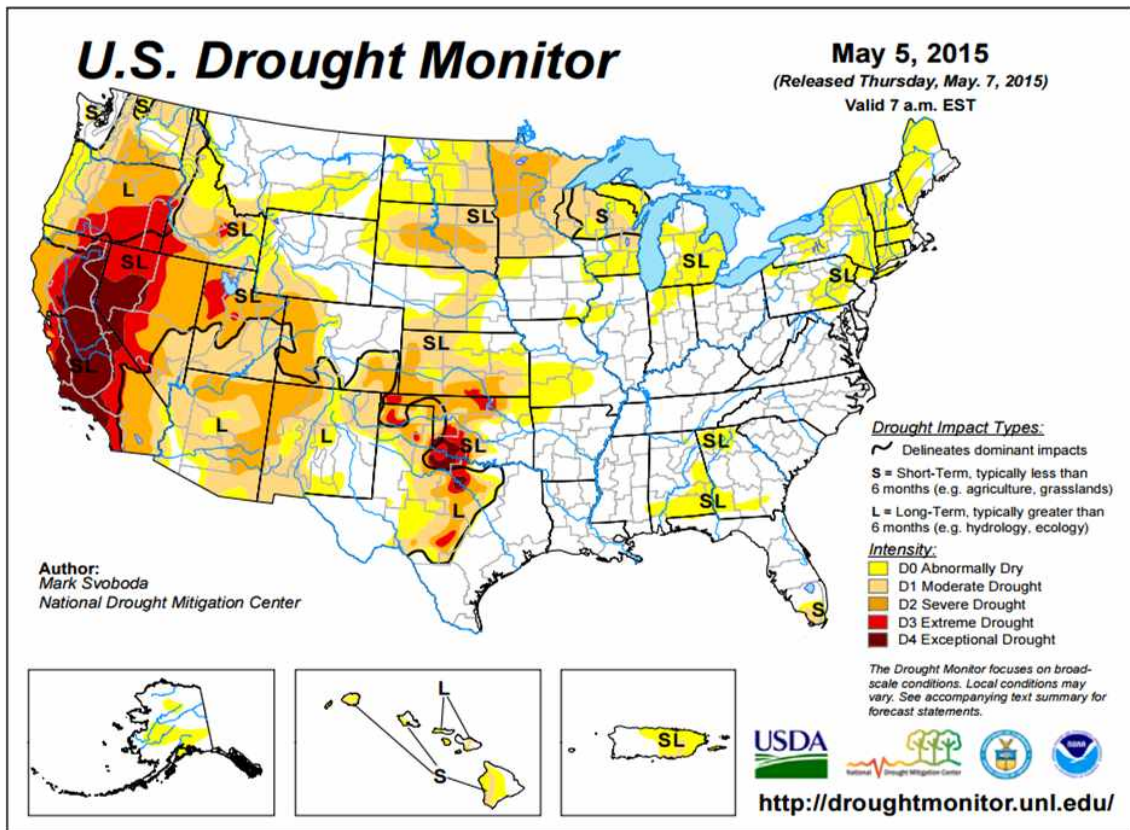


5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19)

□ 미국 기후 현황(5/3~5/9)



동부의 옥수수 재배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중서부의 북쪽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내려 표층 토양의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중서부, 중남부,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5°F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말에는 태풍이 대륙의 중부지방을 지나가면서 이 지역 농업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겨울 작물과 새롭게 파종하고 있는 여름 작물에게는 단비가 되었다. 한편,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지역을 포함하는 동부 옥수수 재배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늦어진 파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도 하였다. 남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열대성 저기압인 Ana가 Carolinas의 동쪽 지역에서 5월 7일 형성되어 5월 10일 새벽 Myrtle Beach 인근 지역을 통해 본토에 상륙했는데, 강풍이 불거나 지엽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에 그쳐 Ana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다. 서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고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한 주 간 강우 기록을 살펴보면, 오克拉호마와 텍사스 북부 지역은 4인치, 텍사스 중부와 다코타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인치 미만에 그쳤다. 대평원 지역에서는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지나가기도 했으며, 캘리포니아와 Desert Southwest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어 관수 부담이 줄기도 했다. 북부 내륙 산간 지역과 록키산맥 중앙부에서는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산발적으로 흘날린 눈은 캘리포니아와 Great Basin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농업 현황 요약(5/4~5/10)

미국 동부에서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농업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리노이부터 베르몬트에 이르는 북동부 및 옥수수 재배지역 일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등에서는 5°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부와 대평원 남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몰아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오클라호마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강우량이 7.5인치에 달했다. 서부의 남부 다코타 지역에서는 5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눈이 내리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10인치 이상 쌓이기도 했다.

■ 옥수수

5월 10일 기준 생산자의 75%가 파종을 마쳤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 해 보다는 20%p, 5년 평균보다는 18%p 앞선 수준이다.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파종 시기가 5년 평균보다 18%p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부의 옥수수 재배지에 위치한 일부 주에서는 파종 준비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파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특히, 켄터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는 파종시기가 37%p나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까지는 파종된 옥수수의 29%가 발아했으며, 이는 지난 해 동기보다는 5%p, 5년 평균보다는 20%p 앞선 것이며, 8개 주에서는 발아 시기가 20%p 이상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 가을밀

5월 10일 기준 겨울밀의 출수율은 56% 수준이며, 이는 지난 해 동기보다는 14%p, 5년 평균보다는 11%p 앞선 것이다. 캔사스 동부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이 지역 겨울밀의 생장이 촉진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출수율이 70%에 도달했으며, 이는 5년 평균보다 24%p 앞선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4%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 해 동기보다는 14%p 높은 수준이다.

■ 면화

5월 10일 기준 전체 생산량의 26%가 파종되었으며, 이는 지난 해 보다는 2%p, 5년 평균보다는 6%p 늦은 것이다. 미시시피 계곡의 저지대에 위치한 일부 주에서는 파종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했는데,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의 경우 51%, 알칸사스의 경우 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쌀

5월 10일 기준 83%가 파종되었으며, 이는 지난 해 동기와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1%p 앞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파종율이 37%p, 미주리에서는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파종시기가 5년 평균보다 앞당겨졌다. 5월 10일까지 53%가 발아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 보다는 2%p 앞선 것이지만, 5년 평균보다는 3%p 늦어진 것이다.



□ 세계 기후 현황(4/12~4/18)

■ 유럽: 유럽 중부와 북부 지역은 제트기류로 인해 따뜻하지만, 소나기가 잦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남부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지난 2주 간 이어진 소나기와 폭풍우(5-50mm)로 가뭄이 해소되었고, 겨울 작물과 유지 식물의 개화도 촉진되었다. 영국에서는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져(25-85mm) 겨울 작물의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었으며, 봄철 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토양 수분도 유지될 수 있었다.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으며(3-25mm), 겨울밀 생장에 양호한 환경이 유지되었다. 반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평년보다 3-5°C 높은 수준)가 이어져 겨울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이탈리아 전역과 발칸반도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25-30°C).

■ 구소련(서부): 중부지방에서는 중부 전역에 걸친 강우로 가뭄이 해소되었으며, 남부지방에서도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강우가 내렸다. 대부분의 곡창 지대에서 10-50mm 수준의 강우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중부지역과 러시아 남부지역에서는 겨울밀과 최근에 파종한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생장에 적합한 수분이 유지되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던 가뭄은 최근 내린 강우로 해소되었다. 북부 지방에서는 최근의 낮은 강우, 구름 많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과 봄철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었고, 작물 생장에 적합한 기온도 이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지역 전역에 걸친 강우로 겨울 작물의 후기 발육에 도움이 되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으며, 봄철 작물의 발아에도 도움이 되었다. 중국 북부 평원지역에서는 10-50mm의 강우가 지속되었다. 3월 1일부터 평년을 웃도는 강우량을 기록해 지난 해 보다는 작물의 생육 상황이 확연히 좋아졌다. Yangtz 계곡 전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으며 Anhui와 Jiangsu 같은 분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쌀 재배지역에 내린 비는 쌀의 생육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산간 지역에서는 수확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중국 남부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으며(50-150mm), 이 덕분에 산간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수 있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와 대두 파종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 전역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평균 기온은 10°C를 웃돌았다. 중국 동부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4°C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1-4°C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호주: 남부 퀸즐랜드와 북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는 지난 주 내린 비에 이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면화와 수수 수확 등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보다 남부 지방인 빅토리아와 남극에 가까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등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5-25mm). 이번 비로 밀과 보리, 카놀라 등의 발아가 촉진되었다. 겨울 작물과 유지작물 파종의 경우에도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서부 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C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동부와 남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였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 폭우가 내렸던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Buenos Aires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10mm 이상 내리기도 했지만, 서부 지역과 La Pampa, Salt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Santa fe와 Formosa 등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으며(10-100mm), 이 때문에 면화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강한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3°C 정도 낮은 기온이 유지되었다. Buenos Aires의 남동부지역은 이 시기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36%, 72%가 수확되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일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브라질: 때늦은 소나기로 중부 브라질 지역에서는 이기작 작물인 옥수수와 면화 재배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Mato Grosso, Goias 등 중앙-서부 지역 일대는 강우량이 50mm를 기록하기도 했고, Mato Grosso 북부지방에서는 100mm 가까이 비가 쏟아졌다. 이번 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어(낮 최고기온이 30°C 전후) 고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브라질 남부 지방은 전역에 걸쳐 내린 폭우로 인해(25-75mm)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낮 최고기온이 20°C 전후). 남부지방에 내린 소나기로 옥수수를 비롯해 사탕수수와 커피의 생장이 촉진되었다. 반면, Bahia 서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려(10-50mm) 사탕수수 등 북동부 해안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